

# ESG Wannabe

SK증권 Active전략팀

제약/바이오, 이달미. 3773-9552



## 해외 바이오기업들의 녹색 채권 발행 증가

### ●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녹색 채권을 발행 중인 해외 바이오 기업들

- 미국 법무법인 Fenwick의 자료에 따르면 해외 바이오기업들은 ESG 중에서 S(사회적 책임)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의약품 생산에 따른 환경 영향 최소화로 E(친환경)에 대한 다양한 시행 수립 및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- 환경 이슈 관련으로 10년 이내 탄소중립 및 폐수배출 개선, 폐기물 저감 등을 주요이슈로 언급했고 최근에는 지속가능성과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녹색 채권을 발행하는 추세임.
- 우선 암젠은 지난 2월 약 7억5천만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, 이를 녹색건물, 친환경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. 또한 암젠은 2007년부터 환경중심 프로젝트를 구현, 2027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.
- 머크는 ESG 경영을 위해 지속가능성 채권을 최초로 발행, 의약품, 백신, 감염성 질병연구 및 개발, 신재생에너지 발전, 에너지 효율 지출, 친환경 건물, 지속가능한 물 및 폐수관리 등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.
- 테바는 기후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을 50억달러 규모로 발행함.
-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상위사 중심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. 대부분이 사회적 책임(S)에 집중하고 있고 친환경 분야는 타산업 대비 취약, 친환경 요소를 반영한 경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.

### 친환경 경영을 위한 녹색 채권을 발행 중인 해외 바이오 기업

기업명	내용
암젠	ESG 프레임 워크의 일부인 친환경 목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약 7억5천만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했으며 이를 녹색건물, 친환경 운영 및 제품 범주 프로젝트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금액을 할당할 계획.
머크	ESG 목표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채권을 최초로 발행. 우선순위 ESG 분야에서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유엔 지속가능성 개발 발전에 기여.
테바	기후 및 의약품 접근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을 발행. 온실가스 배출량을 25% 줄이고 저소득 및 중위 소득 국가의 환자를 위한 필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150% 증가시키기 위해 가장 큰 규모의 50억 달러 채권을 발행
노바티스	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하고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을 책정. ESG 일환으로 저소득 국가에서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체 공급망에 걸친 탄소중립 목표.



## Compliance Notice

---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 매수 / 15%~15%→ 중립 / -15%미만→ 매도